

都市가 處한 危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洪 湧 옮김

一. 序言

「近者에 와서, 都市人口의 過密, 公害 人口增加에 따른 福祉施設의 不足, 各種 犯罪, 倫理的 퇴폐 等等 일일이 例擲하자면 限없이 많은, 都市化 過程의 不定的 諸般 現象이 날이 갈에 따라 심각하여, 都市의 存在意義와 그 存続可能性 마저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 問題에 관하여 “뉴욕 타임스”誌는 1971年 5月 2日字 新聞에서, 都市肯·否定論을 中心하여 斯界의 碩學 세 사람의 都市 否定論과 都市肯定論 및 中道論을 紹介한바 있다. 都市否定論의 代表的 見解로 Columbia 大學 教授인 유진·라스킨(Eugene Raskin)의 見解와 都市肯定論 即, 都市存続論의 代表的 見解로서는 亦是 美國의 Long Island 大學 教授인 세뮤얼·테넨봄(Samuel Tenenbaum)의 見解와 아울러 中道論의 立場으로서는 “뉴욕 타임스”의 都市問題專門 論說委員인 리차드·리브스(Richard Reeves)의 見解를 記載·紹介한바 있다.

이같은 위에 말한 “뉴욕·타임스”에서 紹介한 세 사람의 見解를 抄訳한것이다.

勿論 美國의 都市問題와 우리나라의 都市問題는 그 性格이나 問題性을 相當히 달리 하고 있으며, 特히 美國의 都市問題는 말 그대로 「都市의 問題」即 既成都市의 問題이나, 우리나라의 都市問題는 都市問題 以前 段階인 「都市化 過程의 問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都市化過程에 따른 諸問題點을 研究함에 있어서, 都市化 以後의 問題點을 考慮할 必要가 있음은 再言을 不要한다.

우리나라의 都市化 過程에 따른 問題點을 研究함에 있어서 西歐의 都市化 以後의 問題點을 미리 考察하는 것은, 西歐 先進國이 都市化 過程에서 犯한 愚를 피하여 갈 수 있는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위에 말한 都市가 處한 危機에 関한 各己 相異한 立場을 여기에서 簡單히 抄訳·紹介할까 한다.」

二. 都市否定論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大都市는 單純히 어떤 危機에 處해 있는 以上の 滅亡의 危險에 直面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根據(現象)는 數없이 많으며 여기서 일일이 예거할 必要조차 없는 일이다. 確實히 現代의 大都市들은 죽어가고 있다.

現代都市가 『滅亡의 過程』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어찌면 不可避한 都市 歷史의 宿命的 過程일지도 모를 일이다.

讀者들이 이미 日常生活에서 허다히 經驗하고있

드시, 大都市는 이제는 한치의 空地도 없을 程度로 이미 空間적으로 消盡되어 버렸으며, 大都市의 財政은 이 以上 더 大都市 自體의 問題를 解決하기에는 너무나 貧弱한 實情이며, 거기에는 大都市의 行政官僚들은 이미 不正腐敗의 因習에 젖어 있다. 大都市에서는 例外없이 各種 犯罪가 철새없이 들끓고, 人種紛爭, 失業問題, 空氣오염, 社會保障 制度의 改善要求等 끝없는 問題들이 失意와 失望 가운데 꼬리를 물고 發生하고 있다.

오늘날 現代都市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狀況을 事實 그대로 直視하고 좀더 眞摯하게 생각 해 보면, 大都市는 이미 救濟不可能한 狀態에 빠 저버렸으며, 宿命的으로, 大都市의 構造自体로 인 하여, 人間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不正의인諸 現象과 結束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發見할 수 있 다.

大都市에 關한 이러한 悲觀的인 생각은 누구나 쉽게 肯定할 수 있는 明白한 일이다.

이 地球上에 언제 부터 人間이 居住하기 始作하였는지 그 年代는 分明치 않다 하더라도, 如何間 人間이 地球上에 居住하기 始作한 以來 數百萬年 或은 그 以上の 人類의 歷史를 통하여, 人間은 동굴에서도 居住하였으며 또는 높은 언덕바지에서 도 居住하여 왔으며, 歷史의 發展과 더불어 수렵 생활에서 농경생활을 거쳐 最終的인 居住形態로서 所謂「市民生活」을 形成하여 왔다.

이러한 人類史의 各段階는 段階마다 特有的 人間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爲한 하나의 方法으로 形成·發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各段階는 發展되고 開花되어 번창하다가, 드디어 人間의 欲求를 더 以上 充足시킬 수 없게되면 쇠퇴하여, 歷史의 發展은 다음 段階로 移行하여 왔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本來的 關心事인 都市問題에 關하여, 人間의 어떤 欲求가 都市의 形成을 超來하였는가 考察해 보기로 하자.

近代都市의 發生要因을 極端的으로 單純化하여 分析하여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即 防衛上의 要因, 商業 및 交易 去來上의 要因 및 歡樂上의 要因이 近代都市를 形成하게 된 人間의 欲求였다.

첫째 要因인 防衛上의 必要性은 敵의 外侵을 막기 爲하여서는 戰略的인 城을 쌓고 또 이 城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기 爲하여서는 數 많은 勞動力이 必要하였다. 이러한 必要性에 依한 勞働人口의 集

中은 結果的으로 都市를 形成하게되는 하나의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두번째 要因인 去來上의 要因을 살펴 본다면, 財貨의 交換, 技術者 및 專門家의 集中과 이에 隨伴되는 產業의 發達 및 經濟成長은 都市의 發生과 成長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特히 產業發達과 現代都市問題의 相互 關連性은, 現代都市問題를 本格的으로 그 核心을 파악하기 爲하여서는 보다더 철저히 多角的으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生活의 歡樂上의 要因을 살펴 보면, 各樣各색의 人口가 密集하여 生活함에 따라 多樣的 社交에서 人間은 生活를 享有할 機會를 얻게되며, 自己가 미처 알지 못하던 部類의 사람들과 사귄수 있는 機會를 누리게 되고 나아가 가서는 새로운 經驗을 體驗하게 되는 것이다. 都市의 찬란한 美와 都市에 사는 “씨렌”의 후예들이 풍기는 풍만한 육체적 매력은 都市生活에 따른 삶의 歡喜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삶에 대한 人間의 欲求는 오늘의 都市를 形成한 또하나의 重要한 心理的 要因임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면 오늘날의 都市가 果然 이러한 都市 形成의 先行要因인 위에 말한 세가지 都市의 存在意義를 充足시켜 주고 있는가?

今世紀에 들어와서, 特히 지난 數十年間의 都市狀況을 살펴 볼 때, 現代都市는 위에 말한 세가지 要因을 더 以上 充足시켜줄 可能性을 完全히 상실하여 버렸다고밖에는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제 위에 말한 세가지 要因에 따라 現代都市의 그 機能遂行 可能 如否를 하나씩 檢討해 보기로 하자.

防衛的 要因의 側面:

大陸間 誘導彈 공격망의 範圍內에 들어가 있는 大都市는 防衛面에서는 現代戰에 있어서 가장 不

利한 立場에 處해져 있음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줄 안다. 今世紀初 第二次 世界大戰때 우리가 이미 經驗한바와 같이, 大都市는 공격의 第一目標 였다. 二次大戰時 獨逸의 莫強한 空軍機들이 London 대 폭격을 감행했을때 London 市民들은 妻子들을 시골로 避難시킬수 밖에 別道理가 없었다.

結局 産業·行政·金融·教育·文化의 中心地인 大都市는 敵의 戰爭遂行能力을 減退시키기 爲한 戰略의 공격의 第一目標가 되며, 오늘날 現代戰의 宇宙空間을 利用한 공격에 對備하여 大都市를 방어한다는 것은 戰術上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現代戰과 關聯하여 생각해 보면, 現代都市는 現代以前의 都市들이 가지고 있던 防衛上的 利點이나 機能을 거의 完全히 喪失하고 말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去來의 要因의 側面 :

이 問題는 너무나 明白하여 論拋하기 조차 속스러운 일이다.

大都市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미 空間的으로 消盡되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工場이 都市에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既存 産業體들도 施設擴張의 必要性和 管理機構의 擴大等으로 都市에서 더 이상 버티어 나갈 수 없게 되어 企業運營의 觀點에서 可能性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市外로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이 最近의 傾向이다.

특히 公害防止를 爲한 各種 行政 措置에 依한 工場管理費 및 生産費의 增加는 이러한 傾向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産業面에서도 現代都市는 本來 都市가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利點을 더 이상 享有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歡樂의 要因의 側面 :

이 問題에 關하여서는 一般 市民과 富有層을 區別하여 都市生活에 따른 삶의 歡喜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一般 市民層의 都市生活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리는 都市生活이란 삶의 歡喜와는 여러가지 局面에서 거리가 멀다.

失業者들은 더 말할 여지도 없으며 職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 온 종일 職業이나 職場에서 시달려 生業自体가 하나의 苦役이 되어 버렸고, 그렇지 않으면 失業者의 무리에 끼어 社會 保障策에 依한 救護事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온종일 救護機關의 窓口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기껏 自己의 生活을 즐기려면, 社會生活을 통하여 自己 自身의 個性이나 人格을 연마하기 보다는 집안에 앉아 TV나 보게 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같이 一般 市民들이 TV를 보고 즐기고, TV와 同和되어 감에 따라, 여러가지 社會問題나, 政治, 經濟, 文化 等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스스로 생각할 能力이 마비되고, 同質的인 思考方法에 빠져 들어가 平板의 人格을 이루게되며 個性을 喪失하고, 逆說的으로 都市生活의 多樣性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歡喜는 전혀 맞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다음은 富有層의 都市生活을 살펴 보기로 하자. 經濟的 余有가 많은 富有層이라 할지라도 近者에 와서 都市生活의 즐거움은 해마다 減少되어 가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高級 大型 리무진은 市內에서는 交通이 혼잡하여 별 쓸모가 없는 단순한 富

의 象徵에 不過한 것이 되어 버렸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나이트·클럽은 實際로 하나씩 들쭉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古典과 藝術的 향취가 높은 연극을 상연하던 극장은 市民들의 關心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다만 演劇評論家들만이 關心을 가지고 甲論乙駁하고 있는 형편이다.

풍만한 육체와 교양있는 옷차림으로 주위의 사람들 즐겁게 해주던 都市의 “씨렌”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都市의 젊은 女性들은 過去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가슴 아프게 눈이 움푹 파인 파리한 피부의 退役 娼婦가 되어 가고 있지 아니 한가?

世界어디서나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 처럼 都市로만 모여들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都市를 빠져 나가는 人口가 더욱 늘어 나고 있는 것이 最近의 傾向이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 開發되는 産業公園地帶로 아니면 새로운 작은 위성 도시로 移徙를 하며, 退職者들은 郊外에 있는 退職者 專用 아파트로 居住地를 옮기며 좀더 餘裕가 있는 사람들은 요양지나 農場이나 아니면 시골 작은 郡庁所在地로, 都市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1970年度의 人口調査에 依하면, 많은 大都市 中心地 中에서 특히 “만하탄”의 人口는 현저히 減少되었음이 들어났다. 反面에 不幸히도, 一定한 社會的地位를 갖지 못한 部類의 人口即 大部分의 흑인과 中南美에서 온 移民들은 社會下部層의 成員이 되어 있는 其他의 下部集團들과 함께 都市中心地에 그냥 계속하여 머물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都市란 빠져 달아 날 수 없는 지옥인 것이다.

西洋 속담에 “누구나 自己가 만든 것은 다시 부셔 버릴수 있는 힘도 가진다” 라는 말이 있다.

如何든 간단히 말하여, 오늘날의 大都市는 都市

의 存在理由인 都市 本來의 機能을 더 以上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大都市는 죽어 가고 있다.

現代大都市의 이와 같은 狀況으로 어차피, 人間은 脫都市社會(Post-Urban Society) 로써 새로운 形態의 生活組織을 追求하게 되었으며, 이 새로운 形態의 組織은 現代都市에 代置하여 未來의 人間 生活의 諸欲求를 充足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社會組織은 여러가지 種類로 分野別로 專門化된 非都市的인 地域社會로 構成될 것이다. 앞서 都市人口의 地方分散 現象에서 잠깐 言及한바 있는 衛星都市 같은 것이 이 새로운 社會組織의 構成要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意味의 都市는 우선 文化의 中心地가 될 것이며, 거기에서는 音樂會가 열리고, 발레와 오페라가 上演되고 영화제가 開催되는 場所가 될 것이며, 博物館과 各種 美術 展覽會가 열릴 것이며, 또한 政府의 行政支援機構가 들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脫都市社會를 向한 社會組織의 移行現象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實際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例컨데 뉴욕市에서 이러한 現象은 일어나고 있다. 뉴욕에 있는 코리세움이나 링컨·센터, UN建物, 뉴·메디슨 광장, 世界 무역센터 등은 專門化되고 特化된 機能을 遂行하는 새로운 形態의 都市를 이루고 있는 实例가 될 것이다.

끝으로 筆者는 여기서 都市의 未來에 關한 予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이며 實際에 現存하는 都市의 諸問題點과 이들 問題點의 發展·展開 方向을 檢討하여 볼 때, 未來의 都市形態를 위와 같이 推定할 수 밖에 없는 結論에 到達하게 됨을 밝히고자 할 뿐이다.

三. 都市肯定論

都市肯定論者가 거의 없는 時代에는, 都市와 人

間生活에 있어서의 都市의 役割에 關하여 좀더 眞摯한 觀察을 해본다는 것은 相當히 큰 意味를 가진다.

오랜 人類의 歷史를 通하여, 都市는 사랑과 羨望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古代 希臘이나 로마人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보다 앞선 數千年의 歷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現象이다.

古代人들은 市民이면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都市에 對하여 精神的으로 깊은 紐帶感을 가지고 있었으며 特히 希臘人이나 로마人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現象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自己들이 사는 都市를 爲하여 즐겨 다투어 奉仕하였으며, 自己들間的 都市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기 爲하여 즐거히 租稅를 負擔하였다. 이 時代에 만들어진 많은 手製品들은 아직도 歷史의 遺物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觀光客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로마”나 “아테네”에 남아 있는 벌어진 입이 달칠 줄 모를 지경으로 경이로운 예술 作品이며, 아름다운 분수와 寺院, 大聖堂, 廣場, 公園等 이루 손꼽을 수 없이 數 많은 藝術品들은 모두 都市를 사랑했던 바로 그 市民들의 손으로 다듬고 만들어진 것이다.

都市와 文明은 相互 密接한 關連이 있는 것이다. 英語의 City와 Civilization이란 單語는 다 같이 그 語源은 라틴語인 Civis(市民)에서 派生된 말이다.

“希臘”이나 “로마”의 藝術과 科學, 哲學과 法律學 및 倫理論은 “希臘”이나 “로마”의 都市에서 發展하여 번창하고 꽃피었던 것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希臘”이나 “로마”의 都市가 滅亡한 때에는 “希臘”이나 “로마”의 榮光도 사라졌던 것이다.

4世紀 내지 5世紀傾에는 讀者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유럽”은 쇠퇴기에 빠져들어 갔던 일이었다. 이 時代를 때로는 中世 暗黒時代라고 한다.

이 時代에는, 都市는 위축되고 破滅되었다. 이 時代의 生活은 지극히 非文明的(rural)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時代의 社會構造는 혼란했으며, 孤立된 것이었으며, 蒙昧적이고 無知가 支配하는 時期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1世紀에 들어와서 都市는 다시 復活하기 始作하였으며, 都市가 復活함에 따라 “유럽”의 文化·藝術·學問도 다시 復活하기 始作하였다.

오늘날의 都市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知性人들과 有能한 人材들과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多樣的 才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企業意慾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매력적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만들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니 自然히 都市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都市는 이들에게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淸중이나 讀者를 찾고 社會的 認定을 받고 싶어하는 詩人和 藝術家와 哲學者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것이며, 商人이나 貿易商에게도 無限한 可能性을 提供하는 매력적인 곳이다.

또한 地方의 各種 塔부와 因習과 制限을 拒否하는 反抗的 氣質이 있는 사람들도 個人의 自由와 無限한 知的 欲求를 滿足시키기 爲하여 都市를 찾아 들게 되는 것이다.

大體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都市生活을 좋아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면 왜 보통사람들은 大部分 都市生活을 希求하는 것일까? 그 理由는 간단한 것이다. 卽 비록 都市에서 過히 富有한 生活을 못한다 하더라도, 地方보다는 拘束이 적고 보다 많은 自由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都市民들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最高級의 知性과

接할 수 있으며, 每日 新聞을 통하여 가장 優秀한 言論記事를 읽을 수 있으며 또한 劇場이나, 라디오, TV 및 公開講演을 통하여 都市民들은 삶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며 勇氣를 얻을 수 있는 機會를 누릴 수 있다.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 알 수 없으나, 都市에서는 아무래도 生活이 便利한 것은 確實하다.

都市만큼 生活하기에 便利한 곳이 또 어디 따로 있겠는가?

都市에서는 多様な 各種 食品이 있으며, 高度의 技術을 가진 各種 專門醫가 있는 病院의 門이 언제나 市民을 爲하여 열려 있으며, 行政機關에서는 各種 文化政策을 세워 市民을 爲하여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情緒生活面에서 보더라도 都市生活은 確實히 地方보다는 훨씬 餘有가 있다. 都市生活은 人間關係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시골에서 보다는 훨씬 密着的인 것이다. 即 同僚들과의 關係는 地方民들의 人間關係에 比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보다 더 깊은 것이다.

同僚들間에는 成功했을 때나 失敗했을 때나 榮光을 얻을때나 失意에 빠져 있을 때나 相互間에 참여하는 度는 相當히 깊은 것이며, 同僚에 對한 同情과 歡喜를 地方民들에게 比하여 훨씬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劇的 순간에 大部分의 都市人은 本能的으로 自己만이 居住하는 집에서 빠져나와 거창한 물결과도 같이 市街地로 흘러들어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劇的 순간에 自身은 외로히 혼자 집에 들어 앉아 고립된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잊지 못할 경험과 담을 쌓고 지낼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最近에 와서 都市의 未來에 關하여 曰可曰否하면서 여러가지 悲觀的인 予測을 하고 있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論爭은 아무 근거가 없는 空論으로 생각된다.

都市는 끝없이 팽창되고 있으며, 現在 都市로 向한 人口移動의 추세는 過去의 그것에 比하여 別差異가 없다.

1900년에는 美國人口의 15%가 中心都市에 居住하고 있었음에 反하여, 1970年度에 와서는 全体人口의 73.5%가 都市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勿論 繼續 上昇할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이같은 都市人口 增加 추세는 輸送의 限界로 因하여 鈍化될 것이다.

都市란 交通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都市에서 必要로 하는 여러가지 財貨를 都市相互間에 或은 地方으로 부터 반입하지 않고서는 調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輸送問題에 對하여 都市悲觀論者들은 「바로 말했다.」고 主張하면서, 이러한 輸送問題는 모든 都市가 例外없이 가지고 있는 危機라고 말한다.

그러나 輸送이나 交通問題는 現代都市에서 비로소 發生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即 歷史적으로 볼 때 都市는 언제나 이 交通問題때문에 곤란을 당하여 왔던 것이다. 例컨데 古代 로마 時代에도 낮에는 모든 車輪은 市街地 中心部를 다니지 못하도록 禁止했을 만큼 步行者들이 市街地를 붐볐던 것이다. “런던”의 都市發達史를 보면 各 時代에 따라 말(馬)과 馬車와 氣車로 시달려 왔으며, 오늘날 美國의 大都市들도 이와 꼭 같은 運命에 시달리고 있다. 美國의 都市들은 時代의 흐름에 따른 交通問題를 좀더 쉽게 解決하기 위하여 地下道와 地下鉄을 파고 高架道路를 建設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는 美國의 現代都市들은 確實히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고 있으며 適切한 方法을 發見하여 이를 實踐하리라고 믿는다.

오늘날 現代都市는 이미 위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여러가지 資源面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都市가 滅亡하리라고 斷定할만한 根拠는 없으며, 筆墨者의 생각으로는 都市는 앞으로도 살아 남을 것이다.

人間의 精神을 都市 以上으로 살찌게 할 곳이 어디에 있으며, 人間의 成就欲을 都市에서 보다 더 充足시킬 곳이 따로 어디에 있겠는가? 祝祭나 고조된 감정을 都市 보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으며, 人間의 社会的 成長의 欲求를 都市 以外에서 어디서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都市生活에서 人間은 多様な 各種 自由를 享有할 수 있으며, 人類共同生活을 爲한 各種 産業이 生産해 내는 各種 機會를 즐길 수 있고, 또한 人間이 人間을 爲하여 創造한 知性的 所産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結論의으로 오늘날의 都市들이 가지고 있는 諸般 隘路事項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都市發達史를 通하여 어느 時代에나 存在하였던 것이다. 오늘의 都市는 都市本來가 가지고 있던 諸利點을 옛과 다름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 都市는 滅亡할 수 밖에 없다는 見解는 根拠없는 지나친 悲觀論이며, 오늘의 都市는 過去에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諸般問題를 解決해 가면서 繼續하여 그 機能을 遂行하리라고 생각된다.

四. 中道論

現代都市는 確實히 죽어 가고 있다. 이러한 病理現象은 都市問題를 소홀히 다룬데서 起因하는 것이며 이는 200年의 美國史에 있어서 하나의 遺産으로 되어 왔다.

歷史의으로 볼 때 美國은 “토마스·제퍼슨”의

時代부터 이미 非都市的(rural)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토마스·제퍼슨”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即「美國政府는 農業에 政策的 重點을 두는 限은 앞으로 계속하여 그 能力을 充分히 발휘할 수 있는 參된 政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이 유럽과 같이 大都市를 建設하는 날이면 美國도 유럽과 같이 腐敗된 社會로 轉락할 것이다.

그의 이말은 美國 社會를 더 없이 明快하게 論破한 것이다.

그는 1985년에 Northwest Ordinance에서 행한 公立學校에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마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말을 한 것이다. 事實上 1842年 까지 뉴욕市에는 公立學校制度가 없었으며, 初期에는, 설사 聯邦政府에서 補助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額數는 實로 微小한 것이었다.

1930年代의 所謂 뉴딜 政策의 一環으로 農業復興法에 依하여 農業의 機械化와 企業農場의 開發로 因하여 農村의 많은 勞動人口들이 일자리를 잃고 北部로 移住하는 結果를 超來하였으며, 이들 移動人口들의 大部分은 都市生活에 適應하기 어려운 單純肉體 勞動者들과 高等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1930年代에는 亦是 都市 中産層의 效外移轉을 지원하기 爲하여 住宅行政이 積極化되었으며 그 結果 都市中産層의 效外移住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

1950年代에 들어 와서는 聯邦高速道路支援法이 制定됨에 따라 相當數의 工場과 市場이 都市中心地를 떠나 效外로 옮기게 되었다. 勿論 筆者는 이러한 現象이 必要없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며,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勿論 워싱턴 當局者들도 이러한 國家施策이 都市를 爲한 것임을 認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施策은 都市問題 解決을 爲하여서는 진부한 方法에 不遇한 것이다.

都市問題 解決을 爲하여 보다 많은 注意와 財源이 配當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都市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前 미네아포리스 市長이었으며 現在는 미네소타 大學에서 講義를 하고 있는 “아더·나프터린”(Arthur Naftalin) 教授의 意見이 옳다고 생각한다. 同教授는 現代都市는 이미 敗北의 祭物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바 있다. 「우리는 이미 都市戰爭에 敗北하였으며, 솔직히 이를 是認하고 美聯邦政府는 獨逸이나 日本의 戰後再建과 같이 美國을 다시 再建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確實히 一理가 있는 것이다.

事實 市行政 當局은 여러가지 戰略과 對策을 강구하여 왔다. 워싱턴當局과 州政府에서는 오물 除去, 防火施設等 여러가지 市政을 爲하여 財產稅의 引上을 이미 오래 前에 宣言한 바 있다. 그러나 都市가 걸머지고 있는 糞일은 날로 늘어 나고 있는 형편이다. 兒童教育 問題, 病院이나, 住宅 增設, 極貧者의 救護問題, 農業地域의 가난퇴치, 犯罪予防等 許多히 山積된 問題를 가지고 있는데다 最近에는 各種 환각제 등의 麻藥性 藥品 問題까지 社會問題로 등장되어 都市의 問題點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例컨데 뉴욕市庁 職員中 환각제藥品에 關한 問題를 다루는 職員의 數는 워싱턴의 聯邦政府에서 이 問題를 취급하는 職員들보다 훨씬 그 數가 많은 형편이다.

우리의 都市는 現在 確實히 죽어가고 있다. 聯邦政府의 歲入이 國家的 水準의 問題만을 解決하기 爲하여 使用되는 限 都市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병들어 죽어 갈 것이다.

더구나 英語 以外의 外國語를 母國語로 하고, 이 外國語로 어릴 때 부터 教育을 받아온 (비록

美國의 성조기를 달고 있는 學校에서 教育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美國에 돌아와 美國의 社會保障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確實히 國家的 問題입에는 틀림없다. (記者註: 멕시코 等地에서 자라, 어떤 形式으로 美國에 入國 또는 歸國하여 美國社會의 혜택을 받는 사실에 對한 問題性은 美國社會 自体로서는 確實히 심각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諸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必要한 聯邦政府의 豫算은 어느 程度나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다.

政府는 10,000,000에 달하는 家庭에 貸付金을 이미 保證하고 있으며, 더구나 州間 高速道路 建設을 爲하여 700만弗을 使用하고 있어서 宇宙開發을 爲하여서는 보다더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감안 한다면 聯邦政府의 所要 豫算이란 莫로 天文學의 數字가 될 것이다.

보다더 많은 財源이 教育과 都市公共生活과 福祉事業에 投入되어야 할 것이다. 如何間 보다 더 많은 돈이 必要한 것만은 確實하다.

國民의 創造의 活動은 반드시 必要한 것이다. 美國政府는 반드시 都市 社會事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確固한 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시이저가 古代 로마 時代에 使用하던 바로 그 꼭같은 方法으로 都市의 오물 除去作業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도 우리의 警察은 1870年代에 使用하던 方法 그대로 警官에게 푸른 制服과 武器를 주어서 現行犯을 체포하라고 그 任務를 지워 주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좀더 좋은 方法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都市問題의 解決을 爲한 方法으로서, 워싱턴 政府나 家庭에서 모두 實踐할 수 있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方法이 發見되리라 의심치 아니한다. 問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眞摯한 태도로 임하면 그 解決方法도 있는 것은 하나의 哲理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自動車를 운전할 때 自動車의 速度가 떨어지거나 높은 고개를 올라가야 할 때는 變速기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眞理는 평범한데 있는 것이다. 現在의 都市를 옛날과 같은 方法으로는 더 이상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때에는 自動車의 變速기아를 바꾸어 넣듯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現代都市는 都市 本來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으며 都市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會 告

會員諸位

1) 臨時總會 開催

1972年度 第1回 臨時總會 續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합니다.

日 時：1972年 4月 27日

場 所：建設會館 大講堂

時 間：午前 十時

2) 本協會 事務室 移轉

本協會 事務室을 아래와 같이 移轉했습니다.

移轉日時：1972年 3月 25日

移轉場所：中區 太平路一街 60-17

(國會圖書館 뒤 聖公會 앞 태성빌딩 5층)

(73)-9491, 9492, (74)-1045

1972年 4月 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姜大雄